



소리주보 QR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오늘 복음(요한 4,5-42)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믿음)을, 예수님을 부르는 사마리아 여인의 호칭(고백)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가십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지치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으러 오자, 목이 마르신 예수님은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까?” 복음에선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유대인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물을 부탁하니 못마땅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으로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 청했다면 오히려 물을 주었을 거라 하십니다. 여인은 이 말에 마음이 좀 수그러들어 말합니다.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을 멸시하는 유대인으로만 봤던 여인은 대화를 통해 뭔가를 느끼고 태도를 바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인이 청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의 지난 과거를 다 알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또 여인이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이후 여인과 고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당신(유대인)’이라고 호칭했지만, ‘선생님’, ‘저의 조상 야곱보다 훌륭한 분’, ‘예언자’, 그리고 결국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과거로 인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어둠에 갇혀 살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통해 자신을 구원해 줄 참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혹시나 지금 힘든 일들에 너무나 지치고 아파 눈물이 나고, 주저앉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체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탈출 17,3-7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 로마 5,1-2.5-8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

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복음 요한 4,5-4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빛과 소금은?

2026년 교구장 사목교서 해설을 통해 교구민이 '환대하는 공동체의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연재되는 공간입니다.

겸손과 에덕 | 하느님을 받아들이다 이웃을 받아들이기 3-1

김범중 안토니오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지닌 덕목입니다. 겸손의 중요성은 성경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겸손을 통한 신비가 완전히 드러났음을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곧 겸손한 이들을 복되다고 선포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9)라고 말씀하시며, 겸손의 완전한 모범으로 당신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역시 겸손의 탁월한 모범으로,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48)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신비 앞에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외치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겸손의 시작은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도와 체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이시며, 그분과 비교할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덕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며, 이는 겸손한 자기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인간은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사도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2코린 12,9)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 믿음의 빛 안에서 하느님 앞에 선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는 데서 자라납니다. 동시에 꾸준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강생과 공생활, 수난과 죽음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합니다. 성인들은 기도를 통해 겸손을 성장시켰으며,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겸손의 궁극적 동기가 사랑임을 체험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태도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참된 겸손은 칭찬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겸손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영성 생활의 기초입니다. 겸손은 교만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느님 중심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에 열린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을 통해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환대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이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환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터널 속에서 빛이 보였다

어느 누구든지 살다 보면 어두운 터널은 다 있을 것이다. 캄캄한 터널을 힘들게 달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 주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이것이 삶이구나 생각하면서 밝은 빛을 따라 달렸다. 그러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 둘은 2살, 3살인데 어느 날 아픔의 그림자가 나를 괴롭혔다.

둘째 형님이 다니시는 성당에 마음이 평안해질까 싶어 쫓아갔다. 그런데 형님은 가까운 성당으로 가라고 하시기에 혼자 스스로 성당 문을 두드렸다. 이때부터 내 홀로서기 삶의 시작이었다. 나를 낳아 기르셨던 아버지 앞에서도 울어본 적이 없건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싶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잘 왔다 반겨주시는 느낌이었다.

성가를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나의 가슴은 깊이 울리는 징과 같았다. 주님께 신세 한탄으로 넘두리를 하고 나니 마음은 평안해졌다. 곧바로 예비자 교리반에 입교를 하고, 1985년 주님 성탄 대축일에 세례를 받았다. 곧이어 아이 둘도 유아세례를 받고, 나의 병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왜 나를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나에게 닿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나을 수 있다는 성경 말씀 따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일 미사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검은 그림자는 앞을 가로막았다. 한 곳에 살면서 이사를 일곱 번 하고, 지금 정착한 곳이 열 번째 옥련동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고통도 주시면서 큰 은총도 주신다고, 누구든지 십자가는 다 있다고 들었다. 언젠가는 밝은 빛을 주실 것을 믿고 빛을 향해 달렸다.

딸은 중학교에 들어가며 신앙도 쉬고 견진 성사도 안 받았다. 그로부터 삼십 년 만에 성당에 갈 거라고 하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다. 아들도 고등학교 이후 성당을 쉬고 비신자를 만나 관면혼배를 하지 않고 8년을 살았다. 그러나 나는 며느리에게 성당을 다니라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언행을 조심하고 내가 할 도리만 하면서 기다려주고 ‘주님,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드렸다.

그러던 중 2년 전, 손녀가 입학할 하고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성당 신자였다. 손녀 친구의 엄마가 깊은 신앙을 갖고 사신 덕분인지, 그 영향으로 아들 부부는 관면혼배를 받고 같은 해 손녀 둘이 유아세례도 받았다. 머지않아 며느리도 입교를 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정에 축복으로 찾아왔다. 작년 성가정 축일에는 아들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도 예쁘게 보이셨는지 ‘성가정상’을 받았다. 받는 기쁨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상이 무겁게 느껴졌다. 처음 마음먹은 신앙이 끝까지 성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라.”라는 성가의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니 주님께 위탁하는 생활이 익숙해졌다. 며느리는 10개월의 교리를 받고 성모 승천 대축일에 세례성사를 받아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많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를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터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순간의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이루어 주심을 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속삭인다.



2026 새반장 학교

교구 홍보실, 교구 복음화사목국



2월 24일(화) 교구 복음화사목국(국장 정병덕 라파엘 신부)의 주관으로 각 본당 새 구역·반장들을 위한 새반장 학교가 진행되었다. 새 반장 학교는 시내 지구와 김포·강화 지구 본당에 새로 임명된 구역·반장, 재교육 희망자 509명이 참석하였다.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의 '구역·반장들을 위한 교회법 안내' 강의에서는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을 위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규정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어진 조명연 마태오 신부의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마태 21,3)~'봉사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는 본당 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경청과 소통을 통한 반모임 활성화 방안과 봉사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6 가톨릭 교육인의 날

교구 홍보실, 학교법인 인천가톨릭교육재단



2월 25일(수)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학교법인 인천가톨릭교육재단(사무국장 윤만용 바오로 신부)의 주관으로 가톨릭 교육인의 날 미사를 이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봉헌하였다. 학교법인 산하에 소속된 박문초·중·여고, 소명여중·여고, 인천대건고 6개 학교에서 총 334명의 교직원이 참석하였다. 정신철 주교는 강론을 통해 가톨릭 교육 이념에 따라 교육자이자 스승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어려운 교육 현실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긍정과 행복을 전하는 존재가 되기를 권고하였다. 또한 가톨릭 교육인 선서식과 신규임용(6명), 10년(6명), 20년(7명), 30년(4명) 근속, 정년·명예퇴직(5명) 대상 교직원에게 상장과 공로패, 감사패를 수여하며 격려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제 인사 발령

2월 27일자로 발령

김진열	작은형제회 ▶	석남동 주임
도종현	석남동 주임 ▶	작은형제회
김원중	작은형제회 ▶	석남동 보좌
심종민	석남동 보좌 ▶	작은형제회

녹색순교

친환경 생활 편

권창식 베드로
교구 생태환경사목위원

구매할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장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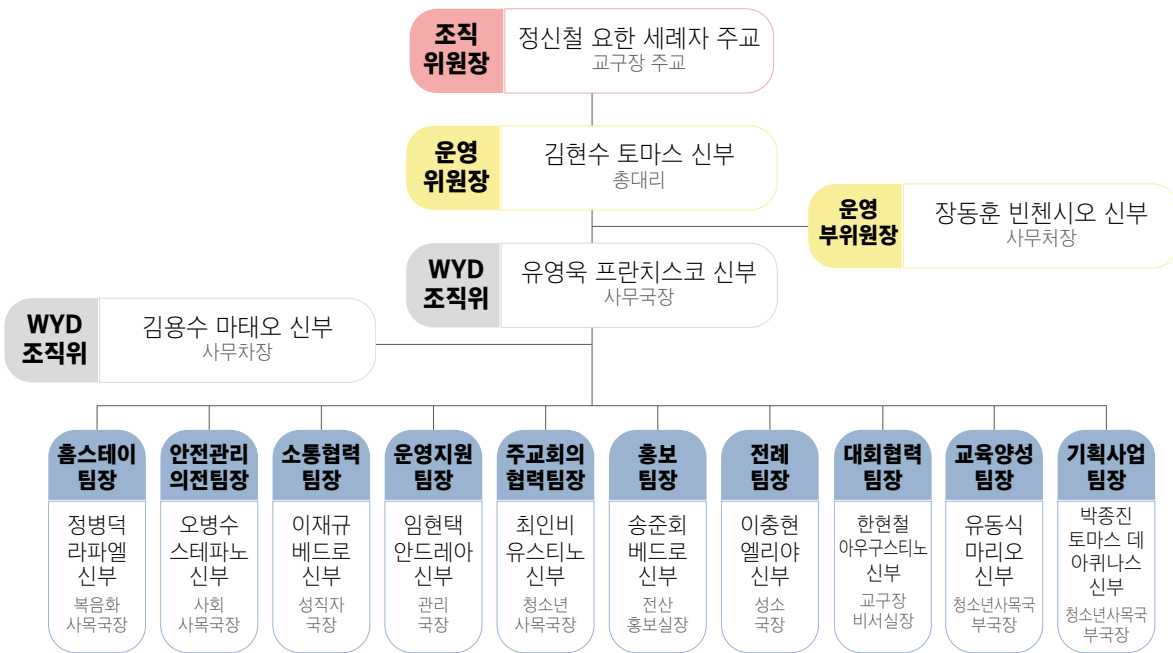
장보기 전에 딱 1분만, 구매 목록을 적어보세요. 행동경제학은 이를 '계획효과'라고 부르는데, 총동구매가 평균 20~30% 줄어든답니다. 온라인 쇼핑이라면 하루쯤 '장바구니 숙성'을 시켜주세요. 지금 꼭 필요한가? 집에 대체재는 없나? 묶음 배송이 되나? 이런 작은 자문이 과대포장과 배송 횟수 그리고 반품률까지 낮춥니다. 다만 조심할 점은 AI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건물생심을 더 정교하게 자극할 수 있지요, 그래서 더더욱 목록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소비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와 통장을 동시에 지킵니다.

2027 WYD 인천 교구대회

2027 WYD 인천 교구대회를 준비하며, 순례객을 통해 교구민 모두가 보편 교회를 체험하고, 가정과 본당 공동체 안에서 신앙 성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구는 '가정 성화, 본당 활성화, 재복음화'라는 사목적 목표를 설정하고 교구민 모두와 함께하는 교구대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2027 WYD 인천 교구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위원 임명

우리 교구는 시노달리따스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사목적이며 효율적인 교구대회 운영을 위해 교구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교구 부서 사제들이 선임되어 기존 소임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교구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당에서도 본당 사제와 사목회를 중심으로 본당조직위원회 구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성운동 2단계 '통공' 성 가롤로 아쿠티스 유해 순례

단계별 영성운동 2단계 '통공'을 주제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후보 성인인 성 가롤로 아쿠티스의 유해 순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 가롤로 아쿠티스는 15세의 나이로 선종하기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성체의 기적'을 알린 '하느님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일상 속에서 신앙을 증거한 성인의 모습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순례	일주일간 유해 모심, 공경 예식(미사 안, 미사 밖)
시작	부활 제3주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대상	인천교구 내 모든 본당, 병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성지, 순례지 등

교회는 성인 유해 공경을 통해 신앙심을 정화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깨닫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 일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와 성인의 전구를 청하는 신앙 성숙의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부 순례 일정은 후보에 게재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구 청

3월 예비신학교 모임

일시: 3/15(주일)
11:00~13:00 중1~고2
11:00~16:00 신학과지리반
장소: 대건고등학교

3월 김포·강화지구 예비신학교 모임

일시: 3/15(주일) 13:30
장소: 김포 성당
대상: 중1~고2

노동사목부 무료노동상담

근로계약, 차별, 해고 등
일시: (월~금) 9:00~18:00
문의: 032-502-3009

17차 가톨릭 약혼자 주말

일시: 6/26(금) 20:30~28(주일) 16:00
장소: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대상: 예비(신혼)부부, 사제, 수도자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566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3/29(주일) 13:30~18:30
장소: 복자 이안나 홀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교육 | 미사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난 삶을 성찰,
의미 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일시: 3/16~25, 4/20~29,
5/18~27, 6/15~24 [10일]
장소: 강원도 홍천(서울 출발)
대상: 60세 이상
금액: 1백만원
문의: 010-7451-9707

성령쇄신봉사회 프로그램

일시: (월) 묵주기도 100단 12:00~17:00
(미사 16:00)
(금) 19:30~22:30
3/6 병자도유예식 및 치유기도회
3/13 강의 말씀치유
3/20 성시간 부르짖는 기도
3/27 밤샘, 떼제기도회 22:00~4:00
장소: 담동문화관 3층
문의: 032-761-6301

ICPE홀송기도회

일시: 3/15 15:00
장소: 과달루페 외방선교회
문의: ICPE플친

가톨릭성서모임 성서사십주간

일시: 3/9~27/1/25 20:00 (비대면)
회비: 5만원
문의: 032-765-6967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엄마와 딸(미혼) 피정: 3/21(토)~22(주일)
·영신수련 침묵피정: 3/27(금)~29(주일)
·청년주말 침묵피정: 3/28(토)~29(주일)
·폼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상시
장소: 예수수도회 오류동
(1, 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문의: 010-6890-7223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일시: 4/17(금) 11:00~18(토)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회비: 9만원
문의: 010-5490-5345

3월 토요일 낮 치유 피정 및 묵주 천송이 기도

·3월 토요일 낮 치유 대피정
일시: 3/14(토) 12:00~17:30
강사: 이성진 미카엘 신부(서울대교구)
·묵주 천송이 기도
일시: 3/16(월) 12:30~17:00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미사, 안수, 중식 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쉼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3월 사순시기 추자도 포함 성지순례: 3/26~28,
3/29~31
·4월 엠마오 떠나는 자연순례: 4/6~8, 7~9,
4/11~14(추자도), 16~18, 20~22, 24~26,
4/28~30(추자도), 5/2~4, 8~10, 11~13
문의: 064-796-4182, 02-773-1455

미리내 성지 성체조배 피정

주제: 말씀 선포로 육화되는 부활의 기쁨
일시: 4/8(수)~10(금) [2박 3일]
장소: 미리내 묵상의 집
문의: 010-2369-9290

부부나들이 피정

일시: 5/9(토) 14:00~10(주일) 17:00
장소: 아론의 집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피정비: 1부부당-20만원(비신자 참여 가능)
계좌: 신헌 131-022-652844
가정선교회(입금 연락)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제주 순례: 3/27~29, 5/9~11, 15~17, 21~23,
6/19~21, 7/3~5
추자도 성지순례: 3/12~14, 18~21,
5/29~6/1, 8~11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암환자 무료 피정

피정기간: (월~목) [3박 4일]
장소: 강화도 마텔쉼터
참가자격: 거동이 가능한 암환자
문의: 010-3355-1946 마텔암재단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섬, 순례(성지, 자연), 말씀초대
일시: 4/11~13, 28~30, 5/23~25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구반장, 사목위원)
주최: 한국통합사목센터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성골품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3/10(화) 14:30 부평2동 성당
문의: 032-529-9621

모집 | 일반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이승훈 베드로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 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부개2동 성당 추모관 "천상의 문" 신청

·성전 추모관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1백만원
·지향자: 매월 연도 및 추모 미사
(설, 추석, 위령성월 제외), 기일 미사 봉헌
문의: 032-505-2048 사무실

박촌동 성당 '기도의 벽' 신청

·본당 4층 야외정원에 지향자 성명 각인: 지향 1인당~1백만원(분납 가능)
·매월 첫째 주(토) 생미사, 둘째 주(토) 연미사 봉헌
문의: 010-2213-3914

교구 가톨릭스카우트 모집

신앙 안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스카우트 활동
모집: 유치부~성인까지 대장, 대원
문의: 010-2484-0072

국제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있는 성인 및 청소년
2개월 이상 정기적 봉사활동이 가능한 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032-290-2701~2

자비와 회복학교 1학기 수강생 모집

일시: 3/10~6/30 매주(화) 10:30~12:30 [16주]
지도: 김태광 신부(팔로티회)
문의: 010-8911-5957, 인터넷 검색 「자비와 회복학교」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추가 모집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원서접수: 3/31(화)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or.kr

항사와 미세먼지 줄이는 '몽골 희망의 숲 조성' 기행

식목행사, 청소년 교류행사, 낙타 등 현지 문화체험
일시: 5/20(수)~24(주일) [4박 5일]
장소: 울란바토르, 미니 고비, 카라코룸
인원: 총 40명(학생 20명, 성인 20명)
참가비: 일반 170만원 (학생 50% 지원, 초5~대학생)
문의: 032-777-9494
가톨릭환경연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 상담
일시: (월~금) 10:00~16:00
문의: 02-990-9366

제21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대상: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접수: 3/18(수)~5/1(금), cbckcee@cbck.kr
참고: 주교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도미니코 평신도회 회원모집(재속회)

대상: 건진성사를 받은 만 63세 이하의 성인 남·여 (인천, 서울, 안산)
문의: 010-9050-8308 성소담당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교육원

순례 | 기타

성심 해외 성지순례

4/9 이태리 성체 성혈 기적 성지 [10일] (아씨시, 산조반니로또도 포함)
지도: 김성대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대표

바로로 국내·외 성지순례

3/14 희망의 순례: 수리산, 손골, 한덕골 교우촌
3/21(토)~23(월) 제주도, 추자도
3/28 수원교구: 은이, 골배마실, 어농, 죽산, 단내, 미리내 성지
5/26~6/6 성모발현지: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반뇌
문의: 010-9200-3532

가톨릭 해외 성지순례

4/5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3일]
4/13, 5/26 이탈리아(전대사) [11일]
4/14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5/19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5/31 프랑스(디종, 아비뇽, 루르드)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www.catholictravel.co.kr

2026년 간 김에 순례(성지순례) 프로그램

유럽 수도원 및 성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분도출판사
문의: 010-5577-3605
분도출판사 홈페이지 배너 참조

이오소피아 성지순례

4/6~10 베트남 다낭, 짜끼우, 라방 성지순례
10/15~18 오사카, 교토, 나라 성지순례
문의: 010-8705-0319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한 위로 한 스펀

유튜브와 SNS에서 "복음밥 신부"로 알려진 인천교구 모래내 성당의 이용현 베드로 신부가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가 출판되었다. 2019년 삶의 여정을 담담하게 풀어갔던 『내 영혼의 탈곡기』 이후 7년 만에 나오는 에세이다.

끊임없이 결과를 요구하시는 시대,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사제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담담히 고백한 글이다. 책은 큰 글씨로 이루어져 특히 눈이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게 편집되어 있다.

지금쯤 사전 주문 기간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QR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32-471-3101

지음 이용현 신부 | 출판 인디콤 | 17,000원(사전 주문 할인 14,000원)



사전 주문 신청

